

## 자살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우째 이런 일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한 인 규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큰 처남이 자기 누님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간단한 안부를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의 봉하마을 할머니들이 호미로 그 동네 논두렁을 뒤지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과연 맘 편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겠는가. 권여사가 P씨로부터 생일(환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를 그곳에 버렸다는 소문을 동네 할머니들이 믿는 모양이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다음,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뒷산에서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는 물론 평생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도 도덕성을 강조해 왔던 사람이다. 그는 부정과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진정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그의 가족들(형, 부인, 아들, 딸, 사위 등)이 P씨로부터 몇 백만 달러를 받았으니,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호화주택을 구입했느니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에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런지 짐작이 간다.

몇 백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사무라이 정신이 한창 각광을 받고 있던 때 어느 사무라이의 아들이 동네 떡 가게에서 떡을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썼다. 이에 격분한 아버지 사무라이가 자식을 죽여 그의 뱃속에 떡이 있나 없나를 살폈다 한다. 훔쳐 먹었다는 떡이 안 보이자 이번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사무라이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칼로 자기 배를 갈라 자결했다는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판단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이는 그래야 자신의 억울함과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25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인 반면, 자녀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식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는 판국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좀 억울하다고 자살을 하다니. 전국의 어린 청소년과 장년들이 본을 볼까 무서워진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기에 정부에서는 그이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기간

7일 동안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명복을 빌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적 지도자가 자살이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한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좌파 인사들이 그를 사후에 성자인 것처럼 추앙하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이번에 그의 죽음을 보도함에 있어서 도하 TV 방송국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아니 그 다음 날까지 이것만 방송을 했으니 거기에도 좌파 방송인이 우글거리는가 보다. 방송윤리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더 한심한 일은 일부 좌파 정치인들이 이런 ‘조문정국’을 활용하여 반정부적 투쟁을 일삼는가 하면 더 심한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나친 감성적 움직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2009. 6. 5).